



경력사항

N Tech Service SW개발 인턴 2018.07.09~2018.08.31 SW개발 인턴

네이버 예약 서비스 개발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메인화면, 상세화면, 예약하기, 예약확인 및 취소, 리뷰남기기 기능과 관련된 front-end(javascript)와 back-end(spring)를 담당하였습니다. 주 2회 현업 개발자분들과의 코드리뷰를 통해 궁금한 점과 개선할 점을 논의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격/어학 사항

영어 toEIC-speaking Level 6 140 2018.02.10 ETS

직무질문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답변 [66등에서 1등까지]
목표를 세우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설렁설렁하지 말고 코피 터질 때까지 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들어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여 전교 66등에서 1등까지 올라갔으며 양산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한 직장에서 2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본부장직까지 맡으셨으며, 꾸준함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꾸준한 복습과 자기관리로 받은 성적장학금]
전역 후 복학할 당시 저의 목표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한 성적장학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업시간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과 매일 많은 학습량에 대한 복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체활동을 통해 극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축구 동아리 활동으로 주 2회 축구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적으로 교내 및 근처 공원에서 걷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업성취라는 명확한 목표와 꾸준한 자기관리로 복학한 첫 학기에는 2/3, 두 번째 학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1만 걸음 걷기]
저는 매일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한 자기 주도적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1만 걸음을 걸으면서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상위 10%의 걸음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산책하고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하루 동안 머릿속에 쌓인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Gr1이라는 가치관은 저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끊임없이 도전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그 의문을 타파하고 목표를 이루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안 될 거야'라는 말 대신 '꾸준히 해보면 될 거야'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로 업무내용의문서화를 통한문제 해결]

학교 정보통신 운영팀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로학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 6개월은 근로학생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근로학생 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근로학생들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도하였습니다. 근로 학생의 주요 업무는 2인 1조를 이루어 IT 장애 접수 및 응대, 서버실 관리, 정보통신처 업무 보조였습니다. 업무 내용을 익히는 기존의 방식은 신입 근로학생과 경력 근로학생이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구두로 인수인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학생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으며, 심지어는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선랜 장애 문제에 대해 근로 학생마다 다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상황에 대한 대처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학생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단체 메신저에서 해결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만들고 이를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모든 근로학생이 업무 내용에 대해 잘 숙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구글 공유문서에 정리하였습니다. IT 장애사항(무선랜, 학교 관련 홈페이지 접속 장애)과 관련한 문의 별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무인 프린터 관련 장애사항(결재 오류, 출력 오류)과 같이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도 모두 공유문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공유문서를 작성한 뒤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 링크를 단체 메신저에 공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 중 문제 발생 시 단체 메신저에서 해결방법을 물어보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컴퓨터실에 종종 프린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작성한 문서에 적힌 대처방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새벽에 다른 근로 학우들에게 대처방법을 물어보는 경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경험한 프로젝트를 적어주세요.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과 활용한 기술 및 개발 방식,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를 극복한 방법 등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답변 <프로젝트 1: 네이버 예약 서비스>

N Tech Service의 SW 개발 인턴과정에서 네이버 예약 서비스 개발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부스트코스 의 Full-Stack Web Developer에서 네이버 예약 서비스 기획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메인화면, 상세화면, 예약하기, 예약확인 및 취소, 리뷰남기기 기능과 관련된 front-end(javascript)와 back-end(spring)을 담당하였습니다. gitlab에서 코드를 관리하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주 2회 현업 개발자들과의 코드리뷰를 통해 궁금한 점과 개선할 점을 논의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움과 극복방법: 효율성]

기능을 구현하면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비효율적이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리뷰시간에 제가 작성한 코드를 공개하여 질문하곤 했는데 사용하는 코드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업 개발자 멘토분들이 다양한 코멘트를 주었는데, 그중 하나는 날짜데이터의 포맷팅과 관련된 코멘트였습니다. 네이버 예약 서비스에서 날짜를 원하는 포맷으로 보여주기 위해 DateFormatter.formatter()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 메소드의 경우 포맷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Spring의 service 객체의 메소드에서 사용한다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객체를 생성해야 하므로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었습니다. 포맷팅의 경우 한 번 설정하고 계속 재사용한다는 목적을 반영하여 생성자에서 선언하거나 혹은 static 영역에 배치하여 코드를 개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static을 사용할 때의 단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극복방법: 클린코드와 모듈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면서 작성한 코드가 "효율적인 코드" 혹은 "읽기 좋은 코드"인지 궁금했는데 멘토분께서 "클린코드"라는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책을 참고하면서 좋은 코드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사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적용해보았습니다. 그 중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름짓기와 함수였습니다. 예를 들면 메인화면의 상단에 프로모션 이미지의 무한 슬라이드 쇼 기능을 구현할 때, 프로모션 이미지 정보를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기능과 무한 슬라이드 쇼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나누어 구현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관련된 코드가 중복 사용되는 부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AJAX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코드, 서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파일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를 별도의 유틸리티로 분리하여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2: 연구실 과제>

9개월간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탁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과제명은 "건물에너지 IoT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위한 Cloud BEMS 요소기술 개발"입니다. 저는 "건물에너지를 관리하는 VOLTTRON이라는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이전트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VOLTTRON이란 PNNL에서 개발하였으며(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연구소) IoT 기기들을 제어하고 전기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파고들어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끈질긴 반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VOLTTRON 플랫폼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오픈소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모두 영어자료였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PNNL에서 제공하는 User Guide와 Document를 참고하여 같은 명령어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VOLTTRON은 플랫폼의 이벤트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정값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플랫폼을 실행하고 결과 로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플랫폼에 대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해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스크린 샷과 간단한 설명을 39쪽 분량의 문서로 기록하였습니다.

[이해를 넘어 컨트리뷰션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pache Kafka의 Producer, Consumer API를 사용하여 Kafka Agent를 구현하였습니다. Kafka Agent의 목적은 VOLTTRON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IoT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VOLTTRON 플랫폼은 IoT (스마트 전구, 가전제품, 냉난방)를 제어하는 플랫폼인데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써 Apache Kafk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개발 목적, 기능, 실행방법을 영어문서로 정리하여 PNNL의 깃 허브에 이슈를 작성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Contributor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코드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LINE에서 왜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답변 [문서화 능력: 협업에 도움을 주는 기록하는 습관]

개발자에게 있어서 개발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서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느 결과물을 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최소한 팀원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문서를 작성하여도 이는 팀 전체의 능력치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거나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실에서 VOLTTRON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분석할 때 같은 명령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스크린샷과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는 데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연구실과 역할을 나누어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실은 플랫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한 문서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실 학생에게 플랫폼에 대해 알려주었고,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하면서 데모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학습해야 할 때, 기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알아본 내용을 팀원과 공유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 저의 장점인 기록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팀의 협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 의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꾸준하게 학습하고 익히며 실력을 키워나가는 습관을 통해 실력 있는 개발자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쌓인다면 진정한 시니어(Senior)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문제 해결 기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기법은 기본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문제 해결 기법 수업은 매주 2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풀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통해 비트연산이나 그래프 알고리즘과 같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그것을 구현해내는 능력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문제 해결 기법 수업을 수강하면서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만큼 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선배 및 동기 3명과 스터디를 구성하였습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서적을 구매하여 각자 담당한 부분에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프로그래밍 대회(IUPC)에 3명이 팀을 이루어 참가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IPv8 주소를 부호가 없는 정수로 변환하여 출력하거나 혹은 반대로 출력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30%대인 문제를 비트연산을 활용하여 한번의 시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기법 수업이나 스터디를 통해 비트연산 문제를 연습한 경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사용한 언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250문제를 해결하고 소스코드를 깃허브에 업로드하면서 꾸준히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 [포트폴리오.pdf](#)

병역사항	보훈대상 여부	장애사항
만기제대	비대상	해당없음